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신실한 섬김 [빌립보서 2:19-3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겸손과 봉사의 깊이 그리고 사랑과 긍휼에 대한 놀라운 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후 갑자기, 오늘 설교본문에선 여행길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는 실질적인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심된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예수님 본받는 것을 진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몹시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사로잡혀 자신 자신의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21). 우리 삶에 누가 가장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낸 이유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를 지원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보내길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성장하여,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 그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일로 자신 스스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주로 바울 곁에서 일했으며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빌립보서가 교회를 위해 적혀진 편지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편지에 언급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어느 구절을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21). 에바브로디도: 그는 디모데보다 더 아나가 그의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주체적인 일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그를 "형제, 동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우"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를 세 번이나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기에 이르렀었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고... *"27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27). "30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30). 우리는 이것들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은 관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참여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그 곳, 우리의 발이 가는 그 곳, 우리를 찾는 곳 그 어디든 그 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 분의 평안과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